

가을 설렘부터 연말 울림까지...예당에 펼쳐진 문화성찬

가을 문턱에서 연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전당 무대가 장르를 넓혀 관객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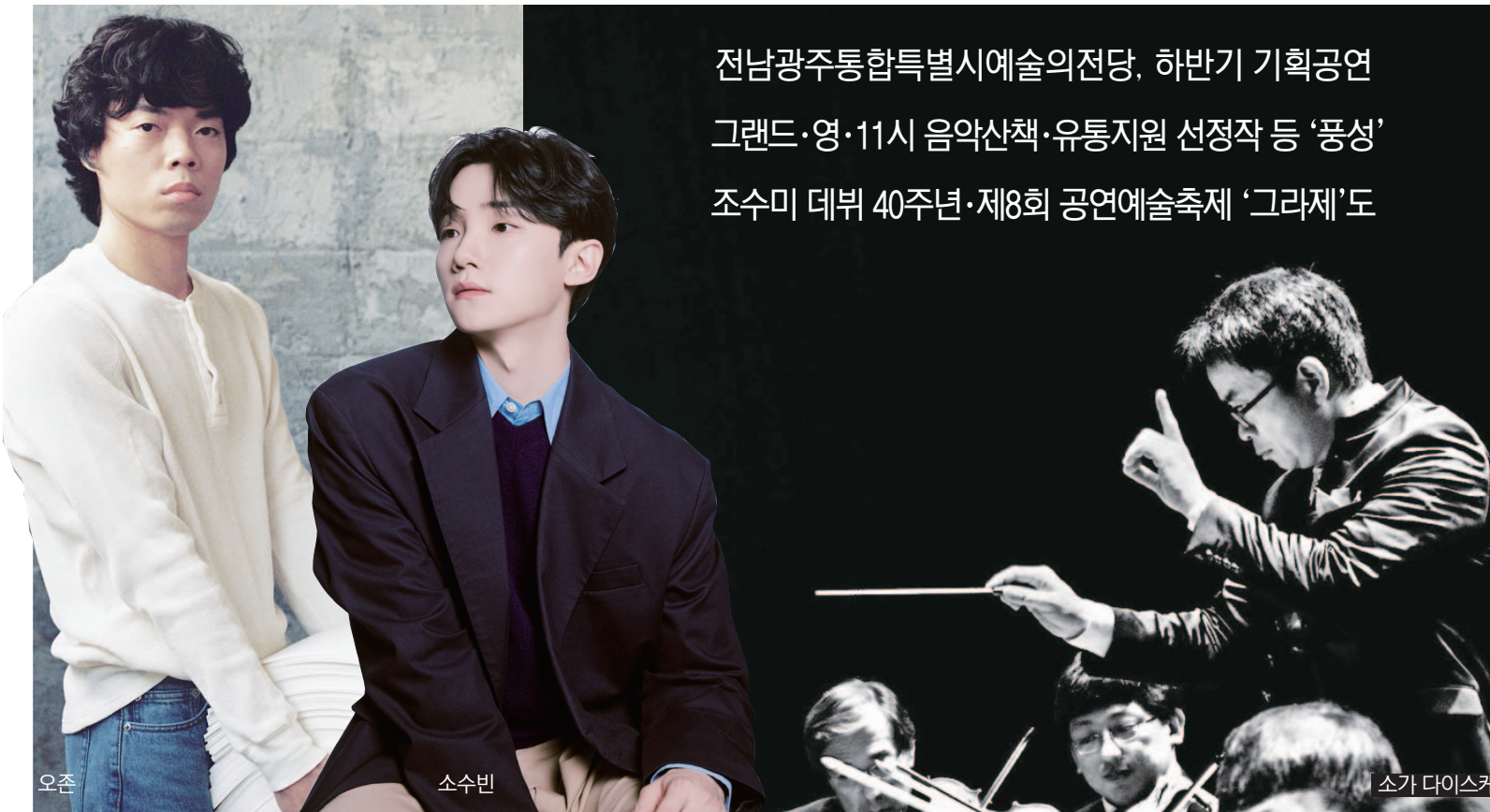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부터 젊은 음악가들의 클래식 무대, 대중음악 공연, 뮤지컬, 연극, 퓨전국악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하반기 시즌을 채운다. 깊어가는 계절의 감성과 연말의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들이 차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은 최근 2026년 하반기 기획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하반기 기획공연은 ‘그랜드 스테이지’, ‘영 스테이지’, ‘11시 음악산책’ 등 3개 색션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과 제8회 공연예술축제 ‘그라제’가 더해져 관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

가장 무게감 있는 축은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그랜드 스테이지’다. 오는 26일 열리는 ‘Maestro: 비밀노트’는 지휘자가 악보를 해석하고 실제 연주로 구현하는 과정을 해설과 함께 보여주는 공연이다. 브장송 콩쿠르와 킬링 콘트라신 콩쿠르를 석권한 지휘자 소가 다이스케가 무대를 이끌고, 플루티스트 오신정과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9월 19일에는 ‘슈퍼 클래식 몬스터II’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2026 칸 오페라페스티벌 콩쿠르 준우승과 2024 루토스와프스키 국제 첼로 콩쿠르 최연소·한국인 최초 우승으로 주목받은 첼리스트 김태연이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호흡을 맞춘다.

10월 15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Into the New World’가 열린다.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무대로, 지휘자 백윤학과 콘서트 가이드 안인모, 2026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피아니스트 손세혁, 전남광주연합오케스트라



오준

조수빈

가 참여한다. 그랜드 스테이지의 대미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장식한다. 12월 20일 열리는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는 40년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온 조수미의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는 공연으로, 연말 대극장 무대에 깊은 울림을 더할 예정이다.

젊은 관객층을 겨냥한 ‘영 스테이지’도 마련된다. 10월 3일에는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무대로 싱어송라이터 오준과 조수빈이 전남광주를 찾는다. 섬세한 음색과 서정적인 음악으로 가을밤의 감성을 채울 전망이다. 12월 13일에는 감성 밴드 스탠딩에그가 한 해의 끝자락을 따뜻한 선율로 물

들인다.

해설과 영상, 연주가 결합한 마티네 콘서트 ‘11시 음악산책’은 하반기에도 ‘단편선 시리즈’를 이어간다. 8월 18일 ‘아름의 여인’을 시작으로 9월 8일 ‘살로메’, 10월 20일 ‘에블린’, 11월 17일 ‘크리스마스 선물’이 차례로 관객을 만난다. 문학과 미술, 음악을 한 무대에서 연결해 작품을 보다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공모사업 선정작들도 하반기 무대를 풍성하게 한다. 10월 1일에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사랑은 비를 타고’가 공연된다.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따뜻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오랜 시

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10월 28일에는 소리꾼 이희문의 ‘이희문 프로젝트 날: NAL’이 무대에 오른다. 선율 악기를 배제하고 장구, 드럼, 전자음향을 중심으로 구성된 파격적인 무대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퓨전 국악의 에너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11월 5일에는 연극 ‘슈만’이 관객과 만난다.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 요하네스 브람스의 삶과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낭만주의 음악과 인물들의 서사가 어우러진다. 12월 5일에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빌라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현실을 유쾌하게 그린 코믹 서스펜스 연극



김태연

‘오백에 삼십’이 공연된다.

지역 대표 종합공연예술축제인 제8회 ‘그라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뮤지컬과 대중음악,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져 하반기 공연 시즌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윤영문 전당장은 “하반기는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공모사업으로 염선된 우수 작품들이 어우러져 더욱 깊이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일상에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남도 대지적 정서와 사회 참여한 현실 깊은 통찰

김희수 시인, 17년 만의 역작 ‘강물의 이력’ 펴내
민족에 대한 회한·팔십 코앞 심사를 일상에 투영
“시절 걱정 등 그 진정성·핍진함으로 먹먹하게 해”

남도의 대지적 정서와 우리 사회의 참여한 현실을 깊은 통찰력으로 노래해온 시단의 원로 김희수 시인이 신작 시집 ‘강물의 이력’(문학들 74)을 펴냈다. 2009년 시집 ‘저 들녘에 내가 있다’를 출간한 후 무려 17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은 흙냄새, 바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 삶의 근거지였던 고향 담양의 농촌 현실과 이제는 부재한 어머니와의 사연, 사건 이후 평생의 강박이 된 1980년 5월 광주, 아직도 분단의 아픔이 여전한 우리 민족에 대한 회한 그리고 어느덧 팔십을 코앞에 둔 시인의 심사가 일상의 체험에 녹아 독자의 마음을 울린다.

시인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행간들을 채우는 작품들로 ‘태몽 마이삭에도 군세고 당당하게/웃어 반기는 서너 송이 꽃//겉보리 절구질이 싫다/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 옛날/벗집 싸들고 밤도망한 누이들’(‘개동참외꽃’)이나 ‘누구의 그늘 아래 산다는 말보다/누구의 그늘이 되어 산다는 말이 훨씬 멋지다//누구에게 적절한 농도의/서늘한 그늘이 된다는 것, 그러려면/우선은 나무부터 반듯이 설 줄 알아야 한다’(‘그늘에 대하여’)고 노래하는 시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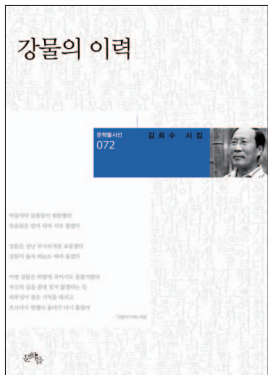
일 것이다.

또 시인이 추구하지는 정신적 가치가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들로 ‘계엄군의 정조준에 심장을 들이 대고/파랗게 떨던 그 새벽도 내 함문도/팽팽하 조인 고무줄의 힘에 맞서다가/피투성으로 쓰러졌지 파열되었지’(‘그해 오월과 향문’)나 ‘통일이 어려워/통일시 쓰기가 어려운가/통일시 쓰기 어려워/통일이 어려운가//...중략.../통일시 한 편/남기지 못하고 떠난 시인은/아무리 유명해도/죽은 시

인이다(‘(죽은 시인’)라고 하는 시편들 대표적이다.

특히 독자의 마음을 더욱 옥죄는 것은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다. 우리 사회와 민족의 현실을 노래하는 시인의 시편에는 이 부채의식이 도저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곧잘 절망이자 희망의 강물로 변주된다.

이틀테면 ‘마을마다 슬픔들이 범람했다/목숨들은 같이 되어 서로 찢



다’(‘강물의 이력’)나 ‘사람다운 세상 위에/피투성으로 싸웠던/이 땅의 삼월 사월/오월 지나//내 고향 담양 땅/대숲 울에는/종마의 거시기 같은/죽순들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네’(‘유월’)라고 노래하는 시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시집은 제5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속 틈틈이 창작해온 작품 70편이 수록됐다. 시인은 이번 시집과 관련해 “세상살이가 어렵듯이 살아갈수록 시는 더욱 어렵다”면서 “까까머리 중학생 때부터 시를 만난 후 바람 냄새 흙냄새 풀냄 나는 시를 쓰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준태 시인은 “그의 시(노래)는 남도평야를 앞가슴으로 깊이 비비면서 흐르는 300리 영산강처럼 유장(悠長)하고도 건강하여서 감동의 폭이 넓고도 깊다”고 했고, 고재중 시인은 “김희수 선생의 평생의 시적 화두는 나라 걱정, 시절 걱정, 고향 생각으로 그 진정성과 핍진함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고 표시를 통해 평했다.

김희수 시인은 1949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전남대 국문과 및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 1983년 ‘민족과 문학’에 ‘우리들의 아들’ 등 8편과 1984년 창작과비평사 17인 시집 ‘마침내 시인이여’에 ‘뱀발기의 노래’ 등 5편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뱀발기의 노래’, ‘오늘은 꽃잎으로 누울지라도’, ‘지는 꽃이 피는 꽃들에게’, ‘사랑의 화학반응’, ‘저 들녘에 내가 있다’ 등을 펴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나의 소원은 독립”...음악극으로 만나는 ‘백범 김구’

라르브르앙상블, 29일 전일빌딩245서...신념·평화 가치 조명

백범 김구의 삶과 독립정신을 음악과 연극으로 만나는 무대가 광주에서 열린다. 라르브르앙상블(대표 김수연)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위인음악극 ‘백범 김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6 광주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라르브르앙상블이 올해 추진하는 ‘광복, 이어진 빛을 음악으로 품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이다. 라르브르앙상블은 앞서 지난 7월 태평양전쟁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들 다룬 인성음악극 ‘이금주’를 무대에 올렸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이끈 백범 김구의 삶과 정신을 음악극으로 재조명한다.

위인음악극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동한 김구 선생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조국의 독립을 향한 신념과 희생,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평화와 문화의 가치를 음악과 연극으로 풀어낸다.

공연은 클래식 연주와 배우의 내레이션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역사적 인물을 어렵고 멀게 느끼기보다, 관객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관객과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마련된다. 사전 신청한 관객들은 공연 당일 배우들과 간단한 리허설을 진행한 뒤, 공연 중 일부 장면에 직접 참여한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장면 등 독립운동의 순간을 함께 체험하며 공연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라르브르앙상블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이 단순히 무대를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장면 안으로 들어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공연의 일원이 되어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연 대표는 “‘이금주’가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한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백범 김구’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바친 지도자의 신념을 음악으로 전하는 작품”이라며 “관객들이 공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책임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라르브르앙상블이 주최·주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원한다.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과 광주백범기념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공연은 사전 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전석 무료.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분석 역량강화 교육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과 젠더분석 방법을 다루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제단 1층 북카페 은세암에서 ‘성주류화와 전환의 잠재력’을 주제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적용할 수 있는 젠더분석 방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등

정책·예산 과정에 활용되는 젠더분석이 성평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분석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주류화는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 규범을 부여하고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재생산하는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여성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도입된 이후 성별영

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등을 통해 정책과 예산에 대한 젠더분석이 이뤄져 왔다.

교육은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책에 대한 젠더분석 방법 및 활용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성불평등 현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불평등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젠더분석 방법을 공유했다. 문의 062-670-0543.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라르브르앙상블은 앞서 지난 7월 태평양전쟁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들 다룬 인성음악극 ‘이금주’를 무대에 올렸다.